

대한민국압화대전

대통령상 '세월을 품은 여행'

11개국 322점 출품·75점 선정...한국압화박물관 연중 전시



김명숙 '세월을 품은 여행'

상을 받은 작품들은 한국압화박물관에 연중 전시된다.

'세월을 품은 여행'은 소중한 만남과 아름다운 자연의 속삭임이 있던 추억의 한 자락을 담아낸 작품이다.

김씨는 "작은 농원에서 꽃을 키워내며 작품 활동을 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며 "압화

품의 수준이 향상되고, 명실상부한 국제 행사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례 김순호 군수는 "압화는 자연과 예술을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분야"라며 "올해도 수준 높은 작품을 출품해 준 압화 예술인들에게 깊이 감사하고, 압화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구례군은 압화의 예술성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전라남도 동부청사 압화 특별전 등 다양한 전시 행사와 압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압화박물관은 세계 유일의 압화박물관으로 역대 압화대전 수상작 등을 상설 전시한다. 산청향노화엑스포, 전남수목비엔날레 등 특별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구례=오광범 기자

제23회 대한민국압화대전에서 김명숙 작 '세월을 품은 여행'이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5일 구례군에 따르면, 이번 대한민국압화대전에는 11개국 작품 322점이 출품됐다. '세월을 품은 여행' 등 75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중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압화대전위원회 조남춘 위원장은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중국, 독일 등 총 11개국에서 대학교나 압화협회를 중심으로 훌륭한 작품을 출품했다"며 "대한민국압화대전은 해가 갈수록 작

'합창을 화합의 장으로, 합창을 화합의 도구로'

12일부터 광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구립합창단과 하모니

광주시립합창단과 광주광역시 구립합창단들과 함께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하모니, 클래식부터 가곡, 뮤지컬, 오페라, 대중가요까지 모두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가 오는 12일부터 16일, 30일까지 광주시 3개 구(북구, 동구, 광산구)에서 펼쳐진다.

광주시립합창단(지휘 이준)은 각 지역 구립합창단과 기획연주회 I·II·III '합창을 화합의 장으로, 합창을 화합의 도구로'를 선보인다.

이번 기획연주회는 지역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를 위해 친원의 행복이라는 소제목으로 부담 없는 관람료

와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광주시민들에게 다가 가고자 한다.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12일 북구합창단과 광주북구문화센터에서, 16일 동구합창단과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열리며 마지막 공연은 30일 광산구립합창단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전 공연 19:30분에 진행되어 조화로운 하모니로 합창의 정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의 시작은 유쾌한 작곡가의 '진향'을 바리톤 김창식의 무대로 막을 열고, 왈츠의 황제라 불리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를 소프라노 정혜진의 독창을 선보이며 시작되고, 독창이 끝나면 여성 2중창 곡인 '꽃의 이중창'으로 화합의 장을 꽃으로 가득 채우며 공연이 이어진다.

다음 순서로는 구립합창단의 무대가 각각의 지역에서 펼쳐지며 오존혁 지휘의 북구합창단은 '강원도 아리랑'과 '가을편지', 박병국 지휘의 동구합창단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여름 편지', 'Swingin' with the Saints'를 선보일 예정이고, 박호진 지휘의 광산구립합창단은 '가고파(전편)', '그대 있는 곳까지', '산 할아버지'를 통하여 각 구립합창단들만의 특색으로 무대를 채울 예정이다. /조선주 기자

목포시립무용단, 유명 전통무용가 5인 초청 공연

오는 18일 문예회관 공연장

목포시립무용단(상임인무자 배강원이 오는 4월 18일 오후 7시 30분 목포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名舞

(명무)초청 기획공연 '心舞(심무)-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춤에 대한 기예가 뛰어나 유명한 전통무용가 5인을 초청해 근대시대 어려웠던 우리의 고단

한 삶을 노래와 춤으로 풀어낸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몸짓이 아니라 마음이 몸에서 우러나는 춤 '심무'를 주제로, 우리의 춤에는 희노애락이 담겨있으며, 춤으로써 마음에 간직한 희망을 담고 있다. /목포=김근호 기자

독자투고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 모두의 노력 필요할 때



김 아 현 /장성경찰서 경무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편화로 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사이버 도박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사이버 도박이란 현실공간에서 도박으로 간주되는 행위가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전자화해나 전자금 융거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다리게임, 달팽이, 로하이, 스포츠 토토 등이 있다.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

용하여 사이버 도박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에 살고 있고, 익명성과 손쉬운 자금 조달로 한 번 돈을 따게 되면 그 짜릿한 기억에서 쉽게 벗어 나지 못하는 게 그 이유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도박을 소액으로 시작하며 사이버머니를 따고 있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돈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주위 친구들을 끌어들이며 지금을 조달하기 위해 급품잡취, 이자놀이 등 학교폭력은 물론 절도·공갈 등 다른 범죄행위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이버 도박에 중독될 경우, 2차 범죄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인 기로 전이되기 때문에 사안이 더욱 심각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도박을 막기 위한 조기 교육 등 사회적 시스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을 호기심이라도 시작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설명해 주는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자녀가 사이버 도박을 하고 있는지 소통과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 및 기업에서는 공동 노력을 통한 불법 도박 사이트 접근 차단과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

인 치료시설 확충, 사행 산업 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 정부, 기업, 가정, 학교, 사회 전반의 공동 노력을 통해 청소년을 사이버 도박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용접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봄철화재 줄입니다



김 기 수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장

중 순직 했으며, 21년 3월 9일 강원도 속초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작업자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들 모두 건설현장에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화재 피해 사례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90건이며, 56명이 숨지고 27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화재에 따른 재산 피해 규모는 약 1천100억원에 달했다.

화재 주요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78%(2천958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11%(400건), 기계적 요인 2%(79건) 순이었다.

주로 흡연이나 우레탄 폼 작업, 페인트 작업을 할 때 부주의가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화원은 용접이 48%(1천805건), 담배꽂초 8%(296건), 전기적 단락 4%(149건) 순으로 많았다.

공사장은 특히 시너, 페인트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난구 또는 소방시설도 충분하지 않아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져도 제때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소방서에 따르면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가 바람을 타고 원거리에 있는 가연물에 옮겨 붙으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계자에게 당부하고 있다

▲용접 작업 전 작업장 주변 환기와 인화성물질을 제거하고 가연물 적치 금지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용접 방화포 등 안전장비 준비 ▲작업장 반경 5m 이내 마른 모래나 소화기 비치 ▲작업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감지사 지정 및 배치 등을 당부하고 있다.

용접작업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들이킬수 없는 대형화재로 확산될수 있어서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해 화재없는 안전한 4월을 보내자.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nmae.co.kr

발행·편집인 고계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편 집 국 장 (062) 363-8800
광 고 국 (062) 363-0005	정·경 부 (062) 362-6116
편 집 국(FAX) (062) 362-0078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 체 부 (062) 362-6116
인쇄취재본부 (062) 943-0140	지 역 사 회 부 (062) 362-6226

구독료 연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 기사제보·독자견견·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 ▶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 인터넷 참여 : <http://www.honmae.co.kr>
- ▶ E-mail : honamnews@hanmail.net
- honammaeil@naver.com

지국안내

- 총 장.....223-4123
- 무 등.....224-4188
- 동 부.....234-4235
- 학 등.....225-0651
- 광 천.....374-2120
- 화 정.....374-3713
- 금 호.....376-7153
- 쌍 춘.....371-9584

- 상 무.....381-5310
- 서 부.....661-0004
- 송 암.....362-4102
- 농 성.....362-4102
- 진 월.....671-7276
- 봉 선.....675-5530
- 중 앙.....521-5640
- 중 흥.....433-1503
- 양 산.....574-3745
- 문 암.....521-4270

- 오 치.....261-9461
- 문 흥.....261-9462
- 일 곡.....573-3200
- 동 운.....525-8994
- 두 암.....266-1920
- 철 단.....971-1920
- 신 창.....955-0451
- 월 곡.....941-9174
- 송 정.....010-5524-3638

지사안내

- 목 포.....010-8718-1234
- 순 천.....010-9656-1383
- 광 양.....010-9656-1383
- 나 주.....010-5691-1976
- 담 양.....010-3602-3650
- 곡 성.....010-5602-1785
- 구 례.....010-8597-0053
- 보 성.....010-3626-4776

- 화 순.....010-2430-5055
- 영 광.....010-9860-5489
- 완 도.....010-5066-4708
- 장 흥.....010-5665-8354
- 신 안.....010-3610-9153
- 강 진.....010-3775-2369
- 장 성.....010-3610-7824

- 함 평.....010-3095-5842
- 영 암.....010-4604-3742
- 무 안.....010-2050-0136
- 진 도.....010-8525-4567
- 해 남.....010-3471-6542
- 광 산.....010-7613-4320
- 고 흥.....010-4644-8383